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7월 8일(수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IMF, 달러 강세 충격 경고
- 2) IMF, 미국 금리인상 내년 초 이후로 늦춰야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글로벌 펀드업계, 자산규모 74조달러, 사상 최대
- 2) 그리스, ESM에 3년물 지원금 공식 요청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"블랙 프라이데이 능가" 아마존 15일 '프라임데이', 직구족 들쭉
- 2) 애플워치 판매량, 출시 초반 대비 90% 감소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IMF, 달러 강세 충격 경고

- IMF는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경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달러 가치가 더 상승하면 미국의 성장이 심각하게 약화할 수 있으며 신흥국 부담도 커진다고 전망
  - 보고서는 주요 통화 바스켓에 대한 달러 가치가 이미 지난 12개월 20% 이상 상승했으며 미국과 다른 경제국 간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지기에 현저히 위험한 상태라 강조
- 또한, 달러 강세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앞으로 5년 사이 GDP의 3.5%로 확대될 것이며 그 수준이 되면 일부 신흥국에 심각한 위험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
- 한편, IMF는 지난 4월 낸 반기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도 달러 강세를 경고했음

### 2) IMF, 미국 금리인상 내년 초 이후로 늦춰야

- 지난 7일 IMF는 미국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가 임금과 물가상승 징후가 명확해 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진단
- IMF는 금리인상시 달러화가 지금보다 더 강세를 나타내 현재로서도 고평가된 달러화가 더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
- 또한, 현재로서는 그리스 및 우크라이나의 위기 상황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유럽 전체 성장률이 타격을 입어 이 여파가 미국의 경제회복세를 가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
- 한편, IMF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보험업계 및 뮤추얼 펀드는 금융 충격에 취약하다고

지적하며 미국 행정부 및 의회는 규제 완화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글로벌 펀드업계, 자산규모 74조달러, 사상 최대

- 지난 7일 파이낸셜타임스(FT)가 글로벌 펀드업계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작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고 보도
  -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이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글로벌 펀드들의 운용 자산 가치는 74조달러(약 8경3879조원)를 기록, 이는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수치
  - 경제회복 기대와 중앙은행들의 시장 개입에 힘입어 증시 및 채권 가치가 빠르게 상승한데 따른 결과
- BCG는 펀드업계 수익 증가는 신규자산 운용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확대된 수수료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
- 한편, BCG는 이처럼 운용자산 및 수익률이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운용사들이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과 일부 투자 상품의 유동성 문제 또한 우려
  - BCG는 미국의 경우 미국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대대적인 규정 변경으로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며 은행들이 더 이상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포지션 청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

## 2) 그리스, ESM에 3년물 지원금 공식 요청

- 지난 8일 그리스가 유럽안정화기구(ESM)에 중기 자금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, 개혁 실행도 함께 공언함
  - 요청서에 따르면 그리스가 요청한 자금은 3년 만기 대출금이며 그리스는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연금과 세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힘
- 또한, 그리스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포괄적인 논의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줄 가능한 조치들을 모색할 기회를 환영한다 덧붙임
- 그리스는 오는 9일 제출할 예정인 개혁안 제안서에 재정적 의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 제안서는 국제 채권단의 평가를 받게 됨
- 한편, 이날 유로그룹은 화상회의를 열고 그리스의 요청을 검토할 예정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“블랙 프라이데이 능가” 아마존 15일 ‘프라임데이’, 직구족 들썩

- 지난 15일 아마존이 오는 15일에 ‘블랙프라이데이’를 능가하는 ‘프라임 데이’ 할인 행사를 하겠다고 발표
  - \* 프라임 회원 : 연회비(미국 아마존 기준 99달러)를 내는 고객에게 고속 배송 서비스와 무료 영상·음악·저장 공간 등을 제공 받는 회원
  - 7월 15일 단 하루만 열리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만 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 가능, 주요 할인 품목은 전자제품, 장난감, 비디오 게임, 영화, 의류, 정원용 물품, 스포츠 용품, 아웃도어 용품 등

- 쇼핑 비수기인 한여름에 충성도와 구매력이 높은 프라임 회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
- o 이 소식이 행사가 열리는 8개국의 아마존 초기 화면을 통해 공지되자 한국의 해외 직구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프라임 가입 방법과 무료 시험 신청 후 해지 방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잇따라 올라온 상황
- o 한편, 무료 고속 배송 등 혜택은 미국 등 해당 지역으로 배송할 때만 적용되며 한국으로 배송할 때는 해당되지 않아 한국에 사는 많은 ‘직구족’은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후 해외의 지인 주소나 배송대행 업체 주소로 물건을 배달시키고 이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쇼핑을 하는 것으로 분석

## 2) 애플워치 판매량, 출시 초반 대비 90% 감소

- o 지난 7일 마켓워치는 애플이 지난 4월 선보인 스마트시계 애플워치의 판매량이 출시 초반에 비해 90% 정도 감소했다고 보도
- o 애플은 애플워치를 처음 시장에 내놓고 한 주 동안 150만개를 판매했지만 애플워치 판매량은 출시 이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2만개를 하회, 최근엔 하루 1만개를 하회한 날도 적지 않았음
- o 또한, 지금까지 판매된 애플워치는 대개 최저가 349달러 수준의 저가 모델이었으며 1만 달러 이상의 고가모델은 지금까지 미국 판매량 2000개미만
- o 한편, 애플은 그동안 새 제품을 선보일 때마다 출시 직후 판매 실적을 공개했지만 애플워치에 대해서는 침묵